슈룹

무료 · 자유롭게 인쇄해 쓰세요

생활기술 수업 전후에 함께 읽는

상황 이야기 5편

비 오는 날, 버스, 횡단보도, 손 씻기, 키오스크 — 생활 속 다섯 장면을
아이의 말("나는 ~해요")로 짧게 풀어 쓴 이야기예요. 한 편에 두 쪽이에요.



비 오는 날, 나는 우산을 써요
2~3쪽



나는 버스를 타요
4~5쪽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요
6~7쪽



나는 손을 씻어요
8~9쪽



나는 키오스크로 주문해요
10~11쪽

이렇게 읽어요

1 **활동 전에 함께 읽어요**
연습하기 전, 조용하고 편안한 때에 아이 옆에 앉아 천천히 읽어 주세요. 한 번에 한 편이면 충분해요.

2 **그림을 가리키며 읽어요**
문장을 읽을 때마다 옆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세요. 아이가 그림을 짚거나 따라 말하면 기다려 주세요.

3 **활동이 끝나면 다시 읽어요**
해 본 뒤에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요. "아까 우리도 이렇게 했지" 하고 오늘 한 일과 이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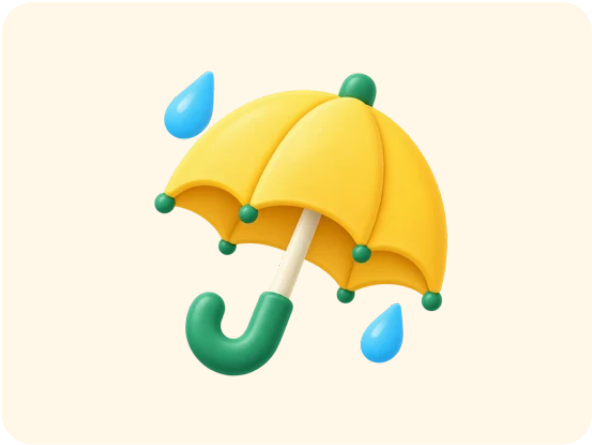
우리 아이에게 맞게 고쳐 읽어도 돼요

- "현관" 대신 "교실 문", "교통카드" 대신 아이가 쓰는 말로 바꿔 읽어요.
- 아직 하지 않는 단계는 건너뛰고, 익숙한 문장부터 읽어요.
- 이야기 순서는 과제분석표 10단계와 같아요. 표와 함께 쓰면 연습할 단계를 고르기 쉬워요.

⚠ 버스·횡단보도 이야기

- 실제 길과 버스에서는 꼭 어른이 바로 옆에서 함께해요.
- 이야기는 순서를 미리 떠올려 보는 자료예요. 혼자 다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나는 우산을 써요



가끔 하늘에서 비가 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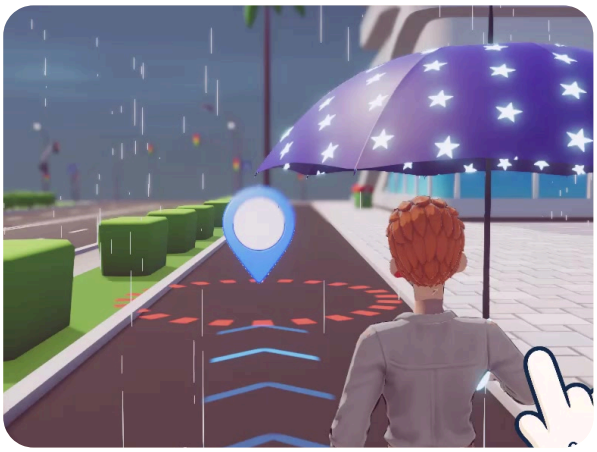
비를 맞으면 머리와 옷이 젖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써요.

나는 현관에서 내 우산을 집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넓은 곳에서 손잡이를 잡고 우산을 천천히 펴요.





나는 우산을 머리 위로 들고 걸어요.

빗방울이 우산 위에 톡톡 떨어져요.

우산을 너무 내리지 않으면 앞이 잘 보여요.

길에는 자동차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차가 오면 나는 멈추고 가장자리로 비켜요.

사람이 지나가면 우산을 살짝 기울여요.

그러면 우산끼리 부딪히지 않아요.





길에 물웅덩이가 있을 때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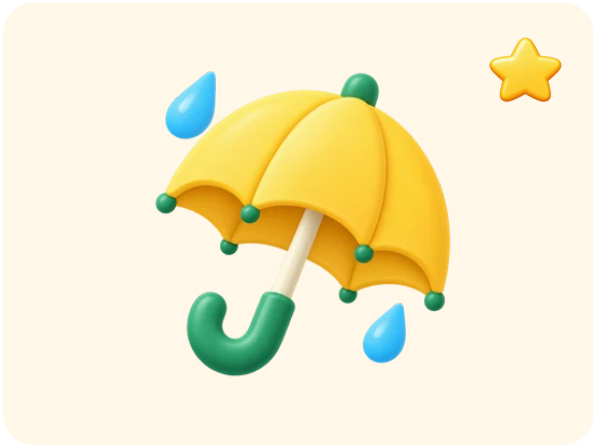
나는 웅덩이를 보고 돌아서 가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우산을 살살 털고 접어요.

나는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요.

다음에 쓸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나는 우산을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상황 이야기 2/5

나는 버스를 타요

어른과 함께



버스는 많은 사람이 함께 타는 차예요.

나는 어른과 함께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면 먼 곳에도 갈 수 있어요.

나는 어른과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요.

버스마다 번호가 있어요.

나는 타야 할 버스 번호를 찾아 확인해요.





내 버스가 오면 손을 들어 알려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줄 뒤에 서요.

앞사람이 다 타면 내 차례가 와요.

나는 차례대로 버스에 올라타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잠깐 기다려요.

소리가 나면 다 된 거예요.





버스는 움직이다가 멈추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버스가 움직이기 전에 손잡이를 잡아요.

빈자리가 있으면 앉아요. 없으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어요.

내릴 곳이 가까워지면 하차 벨을 눌러요.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에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요.

어른과 함께라서 마음이 든든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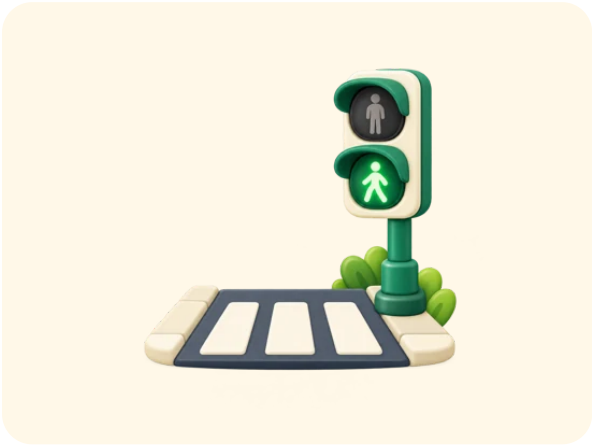
⚠ **실제 길·버스는 꼭 어른과 함께** 이야기를 읽은 뒤 밖에서 해 볼 때는 어른이 바로 옆에서 손을 잡고, 한 단계씩 천천히 해요.



상황 이야기 3/5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요

어른과 함께



길에는 자동차가 다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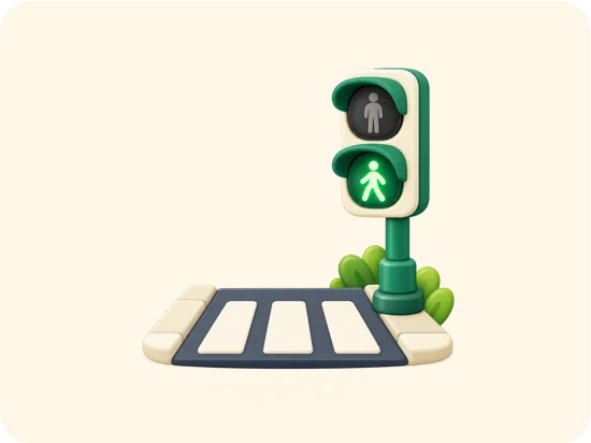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요.

나는 어른과 함께 건너요.

나는 횡단보도 앞, 인도 위에 멈춰서요.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조금 기다리면 신호가 바뀌어요.





초록불이 켜졌는지 확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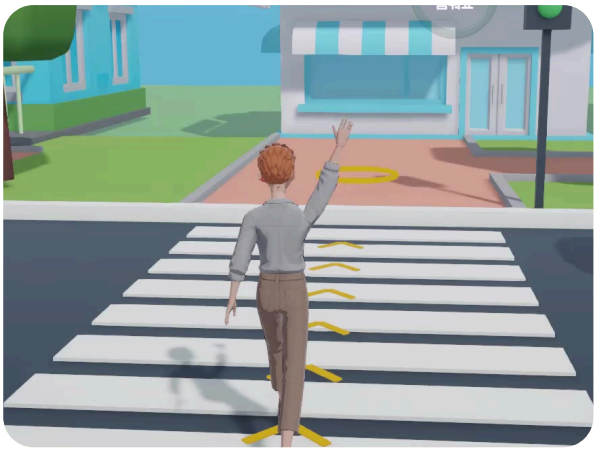
고개를 돌려 왼쪽을 봐요.

오른쪽도 봐요. 차가 오는지 살펴요.

차가 모두 멈췄는지 확인해요.

나는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 운전하는 사람이 나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나는 횡단보도 안으로 걸어서 건너요.

뛰지 않고 끝까지 주위를 보며 걸어요.

어른이 내 옆에서 함께 걸어요.

건너편 인도에 올라서면 멈춰요.

이제 길을 다 건넜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천천히 건너면 어른도 마음을 놓아요.



⚠ **실제 길·버스는 꼭 어른과 함께** 이야기를 읽은 뒤 밖에서 해 볼 때는 어른이 바로 옆에서 손을 잡고, 한 단계씩 천천히 해요.



상황 이야기 4/5

나는 손을 씻어요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밖에 다녀온 뒤, 밥 먹기 전에 나는 손을 씻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도 손을 씻어요.

나는 세면대 앞까지 걸어가 서요.

손을 뻗어 수도꼭지를 틀어요.

두 손을 흐르는 물에 적셔요.





비누를 눌러 손에 거품을 받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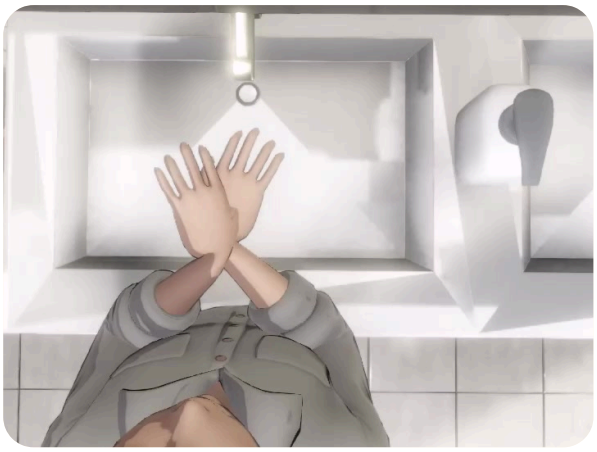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천천히 문질러요.

거품이 보글보글 생겨요.

한 손으로 다른 손등을 덮어 문질러요.

손을 바꿔서 또 문질러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사이사이도 문질러요.





물로 거품을 깨끗이 헹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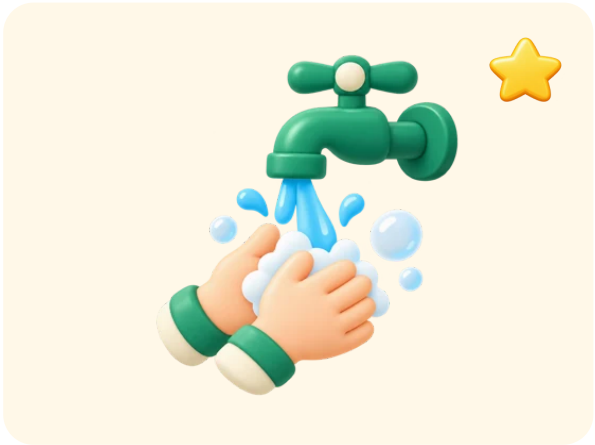
그리고 수도꼭지를 잠가요.

세면대 위에서 두 손을 탈탈 털어요.

수건에 손을 문질러 물기를 닦아요.

이제 내 손이 깨끗하고 보송보송해요.

손을 씻을 때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를 차례로 씻어요.





상황 이야기 5/5

나는 키오스크로 주문해요



식당에는 키오스크가 있을 때가 있어요.

키오스크는 화면을 눌러 주문하는 기계예요.

나는 먹을 것을 먼저 정해요. 어른과 함께 정해도 돼요.

나는 키오스크 화면 앞까지 가서 멈춰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 내 차례를 기다려요.

화면의 주문 시작 버튼을 눌러요.





화면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요.

나는 먹을 것의 종류를 찾아 눌러요.

미리 정한 메뉴 그림을 찾아 눌러요.

세트로 할지, 하나만 살지 골라요.

함께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차례로 골라요.

천천히 찾아도 괜찮아요.





화면에 내가 고른 메뉴와 금액이 나와요.

나는 맞게 골랐는지 확인해요.

다 맞으면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요.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잠깐 기다려요.

번호표가 나오면 챙겨요.

내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을 받으러 가요.

